코로나가 바꾼 기부문화…라면·쌀 등 현물기부 늘어

완주군, '희망 나눔 캠페인' 한 달 만에 목표액 달성
어려운 이웃 눈물 닦아주고자 개인 생필품 기부 쇄도

박상래 기자

코로나19의 장기화는 지역의 기부 문화를 바꿔놓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어려움이 가중되자 이들의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현금보다는 라면이나 쌀, 마스크 등 현물 기부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완주군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1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들에게 힘이 되기 위한 '희망 나눔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20일 군 집계 결과 전년 12월부터 2018년 1월 말까지 진행했던 '희망 2018 나눔 캠페인'에서는 현금과 현물 기부액이 2억2,030만 원에 만족해 목표액(2억7,030만 원) 대비 82% 수준에 그쳤다.

2019년 1월 말까지 진행했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에서도 목표액(2억2,558만 원)을 넘어선 2억8,527만 원의 성금이 모였지만 달성율은 126%로 집계됐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이 확산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말까지 진행된 '희망

2021 나눔 캠페인'에는 목표액(2억9,680만 원)을 훨씬 넘어서는 4억9,301만 원(달성율 166%)의 기부액이 쇄도해 주변을 깜짝 놀라게 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의 반복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해 기부 문화도 크게 위축되지 않겠느냐는 당초의 우려는 올 1월 말까지 진행하는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에서도 완전히 빗나갔다. 군 집계 결과 작년 12월 1일부터 캠페인을 시작한 결과 한 달을 약간 넘긴 올 1월 초에 이미 목표액(3억270만 원)을 훨씬 넘어선 3억2,251만 원을 기록, 오히려 사랑의 온도는 더욱 뜨겁게 달궈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이런 추세로 기부행렬이 계속될 경우 올해 기부금액도 근래 최고치인 5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이웃들이 크게 늘자 이들의 생계에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 위해 김장김치와 방한복, 백미, 마스크, 자사 제품 등 일상 생활용품이나 식품 등을 기부하는 기업과 개인들의 따뜻한 손길이 예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아직 구체적인 통계로 확인하기에는 이르지만 올해 캠페인에는 라면과 쌀, 마스크 등 유난히 실생활에 필요한 개인들의 현물 기부가 많이 들어온 점이 큰 특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전북도 ICT·SW산업 퀀텀 점프 전략 만든다

중장기 발전방향·전략수립 보고회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 전북디지털융합센터는 지난 19일 전북디지털융합센터(전북테크비즈센터 7층)에서 "전라북도 ICT·SW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전략수립" 2차 중간 보고회를 가졌다.

전라북도 ICT·SW산업 비전 및 중장기 발전 전략 및 로드맵을 보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이날 보고회는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 조광희 전북도 주력산업과장, 자문위원, 용역수행업체 등 16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전라북도 ICT·SW산업 중장기 발전방향 및 전략수립' 용역은 최근 3년간 전라북도 산업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향후 5개년(2022~2026) 전라북도 ICT·SW산업 진흥의 핵심전략, 정책을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전라북도 소재 ICT·SW 산업현황 및 경쟁력 분석, △전북 ICT·SW 정책 및 제도 분석, △전북 ICT·SW 산업 핵심 전략 과제 도출, △전북 ICT·SW 중장기 로드맵 수립, △전라북도 데이터산업 육성 방안 등이 제시됐다.

앞으로 전북도와 디지털융합센터는 중간 보고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전북 ICT·SW산업 비전과 중장기 발전방안을 구체화해 '22년 2월 중으로 전북 ICT·SW산업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완성할 방침이다.

전북디지털융합센터 최상호 센터장은 "전라북도 신성장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ICT·SW산업을 퀀텀 점프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며, 신규 사업 발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 전대식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전라북도 ICT·SW산업 여건이 타 지역에 비해 열악한 현실이지만, 이번 용역을 통해 중장기 발전전략과 혁신적인 대형 사업을 발굴해 산업 기반을 다지고,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내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

전북농협, 설명절 대비 식품안전 집중 관리

"소비자가 신뢰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

전북농협은 전북검사국과 합동으로 설 명절을 맞아 오는 31일까지 도내 240여개 계통사업장의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한 식품안전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재호 본부장은 이날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을 방문해 ▲원산지 표시 위반 ▲유통기한 준수 ▲식품위생 관리상태 등 식품안전 관리 형황을 점검하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정재호 본부장은 "코로나19 확산 지속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관계기관의 관리감독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설 명절을 앞두고 농협 매장을 찾는 고객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각 매장의 식품안전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전북농협은 각 사업장 별로 식품안전 관리자를 지정·운영해 정기적으로 식품안전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맞이해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 특별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각 매장별 중점 관리사항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고 농축산물의 신선도와 안전성 확보에 전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박상래 기자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예측 정확도 높인다

농진청, 농업 기후변화 자료로 활용

농촌진흥청이 '신규 온실가스 배출 시나리오에 따라 생산한 우리나라의 미래 기후 정보'를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로 인증받았다.

기후변화 시나리오란 인간 활동에 따른 지구 기후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기온, 강수, 습도, 바람 등 미래 기후를 예측한 정보이다. 기후변화 시나리오 가운데 기상청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증을 받으면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인증을 취득하게 된다.

환경부 등 관련 부처는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기상청 시나리오를 사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기상청은 다양한 미래 기후 시나리오를 활용해 미래 기후 전망 신뢰도를 높이고자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자료를 대상으로 인증 제도(기상법 제21조의 2)를 시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우리나라 60개 기상관측소의 관측과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기후변화 6차 보고서에서 채택된 신규 온실가스 경로 시나리오(SSP)를 토대로 2100년까지의 기온, 강수량 정보를 생산, 인증받았다.

이번에 인증받은 시나리오를 활용하면, 연구자가 개별적으로 방대한 시나리오를 찾아 가공하는 수고로움을 덜고 표준화된 자료에 근거해 농업 부문의 기후변화 변동예측과 평가를 빠르게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과거 30년 동안의 기후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통계적인 보정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수요자 맞춤형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며, 남한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해외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박상래 기자

경제브리핑

전북지방조달청, 에스티원 생산현장 방문

이주현 전북지방조달청장은 20일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주차관제장치 제조업체인 유한회사 에스티원를 방문해 제조공정 및 품질관리 현황 등을 둘러본 후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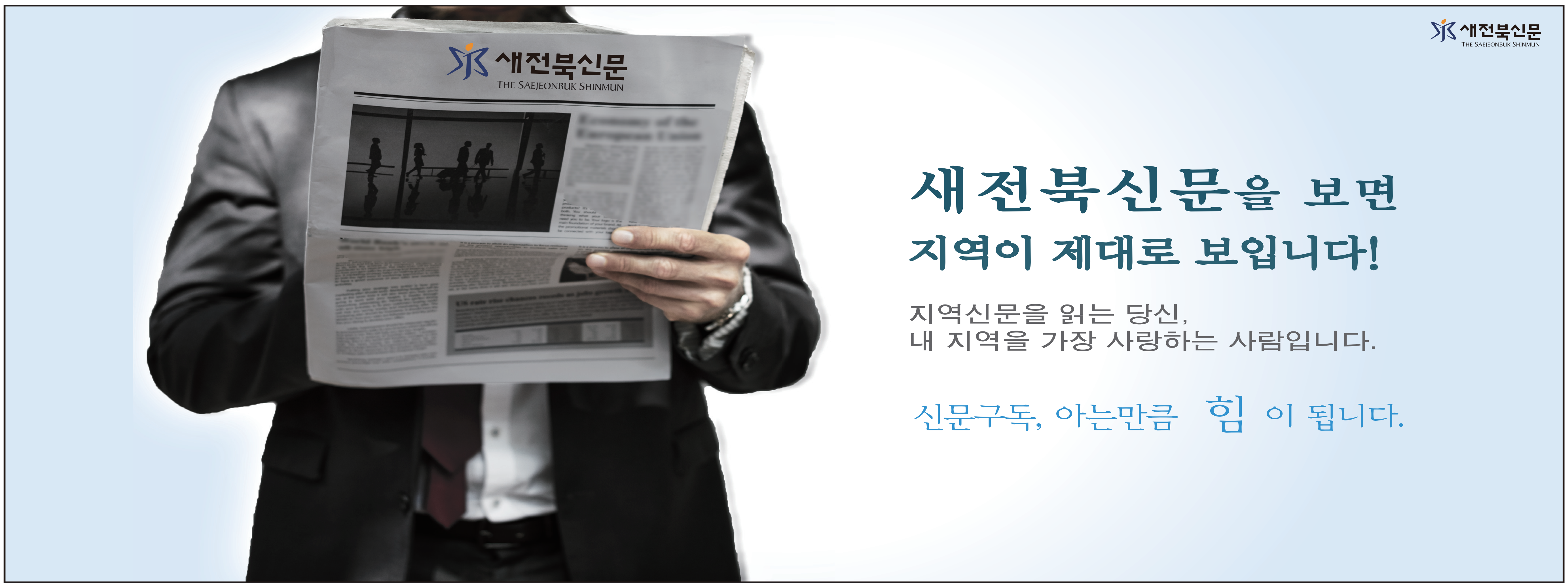
에스티원은 주차주제어장치, 차량감지기, 차량인식기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특허 출원 및 등록 등을 통하여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청장은 "기술력과 성능을 인정받은 지역 중소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 판로확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에게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해 더욱 더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상래 기자

전북은행, 자산관리 역량강화 VM 임명식 및 간담회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지난 19일 본점 연수원에서 자산관리(WM)사업 강화를 위한 '2022년 VM 임명식 및 초청간담회'를 가졌다.

그동안 전북은행은 WM사업 강화 및 확대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인력 VM(Vip Manager, 이하 VM)' 양성을 통해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고객들의 투자성향에 맞는 맞춤형 재무 설계를 지원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7월 이후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각 영업점 12곳에 배치 한 것에 이어 올해는 8곳에 추가 배치했다.

전북은행은 금융상담 전문가인 VM양성을 위한 금융연수원 WM아카데미 주말맞춤연수와 비대면 ZOOM을 활용한 전문가 강의 등으로 영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VM직원 육성에 힘을 쏟고 있다. 또한 VM들은 영업점 고객들에게 세무, 법률, 부동산, 자산관리 등 각 분야별 전문가와의 협업으로 부동산 운용 및 투자, 상속 증여세, 금융소득종합과세 및 양도세 절세 방안 등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전북은행 권오진 부행장은 이 날 열린 VM역량강화 간담회에서 "지난해 자산관리 영업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었다면, 올해는 WM사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VM들의 활약상을 기대한다"며 "고객들을 위한 전북은행만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통해 고객 감동을 선사할 수 있도록 WM사업을 더욱 밀착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상래 기자